

학교급식 2011년까지

2조 2,584억원 투자

교육인적자원부는 '06년 7월 학교급식법 개정 및 '06년 12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 등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됨에 따라,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학교급식 현장 개선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급식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수농산물 '11년까지 6,000학교, 1,000억 원 지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11년까지 5년간 학교급식 32개 세부과제 추진키로 하고 총 2조 2,584억원이 투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가 5월 17~18일 경기 농협안성교육원에서 실시한 '2007년 학교급식 연수회'에서 박희근 학교체육보전급식과장이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과장은 발표에서 “급식의 질 향상 및 과학적 관리와 참여를 통한 수요자 중심 학교급식, 적극적 식생활 교육 병행,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의 급식 시설, 적정수준의 지원 확대로 학부모 부담 경감,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 지원 중심의 급식행정 전환”이라는 학교급식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오는 '11년까지 현 학교급식만족도 55%를 매년 2%씩 향상시켜 '11년에는 70%까지 끌어 올리고, 학교급식비 지원률 17%도 21%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또 “지난 해 3,784교 563억원의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을 '11년까지 6,000교, 1,000억원으로 확대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급식안전성확보 ▶영양관리·식생활지도강화 ▶우수식재료 사용 확대 ▶정부·자치단체의 지원확대 ▶학교급식운영의 내실화 ▶지도·감독 시스템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물맑은 양평 유통사업단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 활성화 방안으로 1,300평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위생처리 시설(농약잔류 검사실, 학교급식관련 친환경농산물 전문 전처리 시설)건설, 유통센터 시설 개선, 서울 수도권 학교 관계자와 학생들에게 친환경 농산물 체험학습 및 물맑은 양평 신뢰성 구축을 위한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학교급식 식자재 생산자단체로부터 구입케 해야

이번 연수회에서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서는 학교가 직접 생산자단체로부터 식재료를 구입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손숙미 가톨릭대 식품영양학과 교수((사)대한 영양사협회 부회장)는 '학교급식의 만족도 향상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손교수는 발표에서 "개정 학교급식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신설될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공급받을 때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단체)로부터 구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교수는 또 "가공식품 역시 (학

교와) 생산자 공장과 계약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손 교수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학교급식연구원(가칭)'일 설치돼야 할 것 등을 주장했다.

한편 이번 학교급식 연수회에는 '학교급식 개선 종합대책(박희근)', '학교급식의 만족도 향상 방안(손숙미)', '학교급식을 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현황(이충현)', '식중독 예방 관리 대책 추진방안(손문기)', '위탁급식의 직영전환에 따른 성과와 만족도(유근우)', 'One-Stop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조동수)', '우리 밥상 우리가 차려 먹어요(백순애)', '학교급식 잔반 안남기기 실천사례와 성과(박래복)', '학교 식재료 공동구매제 운영(이영순)'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교육인적자원부 박희근 과장, 박진욱 사무관을 비롯해 일선 학교장과 시도교육청 학교급식 담당 공무원, 영양(교)사 등 150여명이 참석해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

